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교



남근 숭배와 여인불성불

부처님의 전기에 의하면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태몽 중에 아들이 여섯 개인 흰 코끼리가 태반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에 정반왕이 정성술사를 불러 꿈의 해몽을 부탁했다. 그러자 정성술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임금이 태부인께서는 반드시 남자 아기를 낳으실 것입니다. 32가지의 대장부 모습을 갖추어 그 몸을 장엄할 것입니다. 만 일 왕위를 계승한다면 귀왕이 출가 수레를 타고 천하를 항복시킬 것이며, ... 만일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면 법왕의 경지를 깨달아 이름이 시방에 알려질 것이며, 중생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32상을 갖추었다는 것이 경전상의 일지인 견해이다. 부처님을 전반기 위한 제자들의 존경심을 감안한다면 하더라도 태어날과 동시에 32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이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구비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라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불교에서 32상을 말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인도 사원에서 최대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32상을 구비한 것으로 인식하고

정토의 염원은 전륜성왕과 동일한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32상이란 남성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기 때문에 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여성은 32상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성불할 수도, 전륜성왕이 될 수도 없다는 사고가 은연 중 불교 안에 스며들어 온 것이다. 32상 가운데는 마음장상이 있다. 마음장상은 말의 생식기처럼 남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 물론 32상 자체는 모두 상징이다. 설법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허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가 전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평범이라 하는 것 중 신상과 권위와 현실적 역동성을 32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장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것을 정신과 결부하여 해석하고 그 한다. 즉 여성들이 가족사회의 주축이었던 시대에는 여근승배사상이 있었다. 그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공통으로 드러나는 문화유형이다. 여근승배사상은 특히 농본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 역시 아직 그러한 문화의 유형이 남아 있다. 원불교 법당 안에 있는 쇠로 만든 시루형의 법구나 중국 사원의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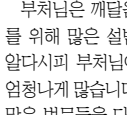
남성우위 시대풍조 32상속에 스며 선업 닦으면 여성도 대장부상 성취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인도인의 일반적인 신상이자 대중들의 보편적인 신앙이기도 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제왕이 아들을 낳아서 32상을 갖추게 되면 마땅히 황제의 지위로 남아가 4천의 으뜸이 되어 선법(善法)으로 다스려 교화할 것이다. 자연히 일곱 가지 보배를 갖추게 되리라"고 말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인도인의 신앙이 비서부 신화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이것이 당시 불교사상 속에 수용된 것이다. 전륜성왕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최위신 재왕의 재계자이다. 부처님이 활동하기 훨씬 이전의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상적인 불왕의 원형적모 동경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세계의 이상적인 임금의 명칭이 되었다. 비서부의 상징인 바퀴를 얻는 것으로 제왕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전륜성왕의 위력에 의해 세계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된다. 부처님이 전륜성왕과 같이 32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한편에서 수용된 것일까? 아마도 대중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 일게 되는 대중들의 평화로운 삶, 진정 있는 인생이 전파되었을 것이라 본다. 평화적인 세계의 통일과 인간

안에서 흔히 목격하게 되는 불단 앞에 놓인 듯 쇠로 만든 시루 등은 모두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이며,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시대가 남성우위로 바뀌면 기존의 신앙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여성 숭배와 함께 남성을 숭배하는 것이다. 땅가신앙이 그것이다. 이어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인간과 세상이 열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남근승배 역시 풍요 내지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왕성한 생식력이 풍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상적인 인간인 32상 속에 풍요를 상징하는 남근승배사상이 빠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파불교시대의 이론사인 <대비바사론>에서는 32상이 성불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말한다. 그것은 다만 백복을 장엄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성일지라도 선업을 닦을 것 같으면 대장부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것이 변성성불의 이론적 단초가 되는 것이지만 완고했던 남성우주의 사고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지 삼십년설원회 · 불교학 박사>

“생각 생각에 마음 비우면 어딜가나 극락세상”

지상 백고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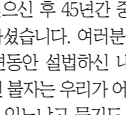


도원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오늘 제가 이 법좌에 앉아 여러분에서 하는 말은 모두 제 말이 아닌 부처님과 역대조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간 중생교화를 위해 설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부처님이 45년동안 설법하신 내용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법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법문을 다 알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근기에 따라 법문을 하시다 보니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된 것 뿐입니다. 불교를 믿을려고 했더니 경전만도 수백, 수천권이 달래 어떻게 불교를 믿겠나 라고 생각하던 그것은 잘못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법문은 무수하지만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한가지만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절에 열상이 다니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보살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다른 생각이고 관세음보살만 지극정성으로 영송하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열심의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영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스님이 와서 "관세음보살 영송도 좋지만 참선을 해야해"라고 충고할 해 주었습니다. 참선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가칭도 풍화모와 진다. 그래서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스님이 "우리가 입암이 두터운 사람들은 열불이나 참선보다는 정화불 하는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보살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참선을 그만두고 다시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불행중야 관세음보살 영송만 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열불가지고 성불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참선도 하고, 정화도 하는 등 갈팡질팡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바쁜 길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경전을 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다가 얻어낸 결론입니다. 부처님의 45년에 걸친 법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설법 중에 약 70% 정도는 심상을 알려주는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심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육신의 우리의 심상입니까? 아니면, 이 육신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장부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고집스레 하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심상을 바로 보는 것에 고집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상을 굳이 따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심상

지상 백고좌



도원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은 그 자체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어지럽힐 정도로 손을 마치 말라, 바로 오계입니다. 심상이란 법기에 비유하자면 다 달고 같습니다. 다 해의 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추듯이 심상 이마 절에 조금 다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심상의 묘제(妙劑)라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는 현재, 공간적으로는 시방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심상은 바로 부처님의 상품을 가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면에 우주가 있고, 우리 자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처님 우리 리 아들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며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은 너 자신이 곧 부처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너는 왜 그렇게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믿고 있고나고 반문할 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이 45년간 설법하신 것 가운데 약 15%는 심상을 바로 알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거든 이런 법자를 믿어라 하고는 내용입니다. 많이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떤 법자를 믿지 말아야 합니까? 흔히 말하는 진여, 보리, 부처는 단지 이름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쁜 음행을 짓지 마라, 마

지상 백고좌



도원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하시는 분들은 오계를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나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계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오계를 잘 지키면서 살았는지, 여기 60, 70대신 노 보살님들도 평생 오계를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계를 잘 지키면 행복해 질수 있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설법하셨습니다. 한편 열심히 실천해 보세요. 정말 행복해지는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는 부분이 1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나 이것 역시 실천이 문제입니다. 불교의 핵심

지상 백고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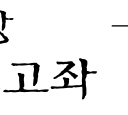


도원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리 정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단지 중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부처, 선, 선, 진여, 보리, 열반, 원가, 대장 등으로 이름 붙여 놓은 것 뿐입니다. 진여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떠나 있는 진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이 의지해 있는 진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말이 의지한 진여입니다. 진여와 심상은 이름만 다를 뿐 의미는 동일합니다.

지상 백고좌



도원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은 그 자체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어지럽힐 정도로 손을 마치 말라, 바로 오계입니다. 심상이란 법기에 비유하자면 다 달고 같습니다. 다 해의 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추듯이 심상 이마 절에 조금 다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심상의 묘제(妙劑)라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는 현재, 공간적으로는 시방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심상은 바로 부처님의 상품을 가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면에 우주가 있고, 우리 자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처님 우리 리 아들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며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은 너 자신이 곧 부처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너는 왜 그렇게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믿고 있고나고 반문할 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이 45년간 설법하신 것 가운데 약 15%는 심상을 바로 알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거든 이런 법자를 믿어라 하고는 내용입니다. 많이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떤 법자를 믿지 말아야 합니까? 흔히 말하는 진여, 보리, 부처는 단지 이름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쁜 음행을 짓지 마라, 마

깨달음 위한 방편 무수하지만 하나만 선택해 수행 잘 하면 돼

여러분은 집을 나와 이곳에 올 때까지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손자 소리, 지하할 소리, 자동차 소리 등등. 그러나 바로 그 소리로 들었으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손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 그 심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본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나 이것 역시 실천이 문제입니다. 불교의 핵심



◀심상을 비로 알고 오계 · 육바라밀 실천하기 강조하는 도원스님.

은 그 자체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어지럽힐 정도로 손을 마치 말라, 바로 오계입니다. 심상이란 법기에 비유하자면 다 달고 같습니다. 다 해의 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추듯이 심상 이마 절에 조금 다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심상의 묘제(妙劑)라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는 현재, 공간적으로는 시방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직도 심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심상은 바로 부처님의 상품을 가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면에 우주가 있고, 우리 자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처님 우리 리 아들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며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은 너 자신이 곧 부처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너는 왜 그렇게 좋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믿고 있고나고 반문할 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이 45년간 설법하신 것 가운데 약 15%는 심상을 바로 알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거든 이런 법자를 믿어라 하고는 내용입니다. 많이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떤 법자를 믿지 말아야 합니까? 흔히 말하는 진여, 보리, 부처는 단지 이름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쁜 음행을 짓지 마라, 마

세상의 모든것이 실상의 묘제 시간적으로 삼계에 걸쳐 있고 공간적으로 시방세계 뒤덮어

은 경전도 아니고 부처님의 법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 실천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 가다보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좋고 해서 이것하고, 저것이 좋고하고 해서 이것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오늘 제가 너무 큰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일거라 하면서도 걱정도 됩니다. 작은 것만 해도 많은 것을 간파해 놓으니까 마땅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심상을 간파했으니 모두 다 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탐진치 버리고 삼보에 귀의해서 생각하기에 마음을 비우면 어디까지 극락세계에세. 탐진=검두서 가지 doobibuddhanews.com 사만=백학대 가지 jwarkibuddhanews.com

45년간 부처님 법문 3가지로 요약

설법의 70% '실상' 알리기 연관 오계지키면 영원한 삶 얻는다

육바라밀의 꾸준한 실천 강조

법회 동참자가 본 도원 스님

4월 21일 불교텔레비전 신사와 1층 무상사, 100명 남짓한 법당 안에는 300여명의 불자들이 불 다닐 틈이 없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부처님이 45년동안 설법하신 내용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법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법문을 다 알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근기에 따라 법문을 하시다 보니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된 것 뿐입니다. 불교를 믿을려고 했더니 경전만도 수백, 수천권이 달래 어떻게 불교를 믿겠나 라고 생각하던 그것은 잘못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법문은 무수하지만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한가지만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절에 열상이 다니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보살이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다른 생각이고 관세음보살만 지극정성으로 영송하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열심의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영송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스님이 와서 "관세음보살 영송도 좋지만 참선을 해야해"라고 충고할 해 주었습니다. 참선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가칭도 풍화모와 진다. 그래서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스님이 "우리가 입암이 두터운 사람들은 열불이나 참선보다는 정화불 하는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보살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참선을 그만두고 다시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불행중야 관세음보살 영송만 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열불가지고 성불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참선도 하고, 정화도 하는 등 갈팡질팡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바쁜 길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경전을 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다가 얻어낸 결론입니다. 부처님의 45년에 걸친 법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설법 중에 약 70% 정도는 심상을 알려주는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심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육신의 우리의 심상입니까? 아니면, 이 육신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장부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고집스레 하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심상을 바로 보는 것에 고집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상을 굳이 따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심상

부처님 설법 3가지 요약 법문 인상적

는 심상을 바로 알게 되었다"고 연신 웃음을 짓는다. 이번 법회를 통해 스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원일법(61 · 서울 창명대보살은 "쉽고 재미있는 법문을 들으니 스님이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법력이 얼마나 높으신지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며 "무언가 알았을 때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며 법문 도중에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 하는 탄성을 질렀는지 모른다"고 법회 감회를 털어놓았다. 1941년 파계사에서 고승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도원스님은 51년 법사에서 통인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69년 월정사 주지, 72년 파계사 주지, 81년 학교법인 승인학원 이사장, 84년 조계종 선관위원장, 85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90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97년-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파계사 대암암에 주석하고 있다.

은 경전도 아니고 부처님의 법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 실천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 가다보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좋고 해서 이것하고, 저것이 좋고하고 해서 이것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오늘 제가 너무 큰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일거라 하면서도 걱정도 됩니다. 작은 것만 해도 많은 것을 간파해 놓으니까 마땅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심상을 간파했으니 모두 다 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탐진치 버리고 삼보에 귀의해서 생각하기에 마음을 비우면 어디까지 극락세계에세. 탐진=검두서 가지 doobibuddhanews.com 사만=백학대 가지 jwarkibuddhanews.com

은 경전도 아니고 부처님의 법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 실천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 가다보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좋고 해서 이것하고, 저것이 좋고하고 해서 이것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오늘 제가 너무 큰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일거라 하면서도 걱정도 됩니다. 작은 것만 해도 많은 것을 간파해 놓으니까 마땅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심상을 간파했으니 모두 다 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탐진치 버리고 삼보에 귀의해서 생각하기에 마음을 비우면 어디까지 극락세계에세. 탐진=검두서 가지 doobibuddhanews.com 사만=백학대 가지 jwarkibuddhanews.com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호명 스님

10여 년전 팔손을 바라보는 작고 겸손한 노스님을 한 번 만났다. 봉도사의 한자로 계시는 호명 노스님이시다. 구십을 바라보는 요즘에도 막시다는 힘이 있고 눈썹이 하얗게 서서서 신신령 같은 모습이다. 방에서는 언제나 책을 놓지 않고 항상 스님들의 수행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서, 제법 선원을 다니며 젊은 수행자들의 수행을 통해 당시의 이상을 확인하시는 활자한 분이시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스님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흐를 차기도 하고 불교의 미래를 너무도 절망이 격정하시는 모습은 후학으로서 본받을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노스님은 불자들의 바쁜 불교공부가 못나 걱정 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시는 간담한 심정으로 하시곤 했다. 그래서 89세의 고령에도 법문을 청하는 곳에는 어디든 가신다. 그렇게라도 부처님 법 먹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만 한 편이라는 생각이든. 노구를 이끌고 단신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 · 문명성

지 관심이 미처가 되는대, 그것이 불자의 온전한 수행이라는 것이다. 스님의 수행관은 종교적인 확고한 믿음과 철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심과 교리와 실천의 원만한 삼위일체를 통해서만이 수행의 목표와 다다를 수 있고,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해서는 끝내 멋진 수행의 결과를 성취할 수 없을 거라 하시었다. 이번 단신실천을 통해 알게 된 스님 자신만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는 언제나 이렇듯 신이 나타나. 그리고 덧붙이는 후련한 한마디 "어이구... 안타깝구... 열심히 해봐요." 노스님에 대한 강한 인상 중에 또 하나는 표교가 많이 되어서는 안되고, 작은 마음, 작은 생각, 작은 소견으로는 진리의 만능 수 없다."는 말씀은 진리의 법문을 이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호소 그 자체였다. 그러나 정작 법문을 듣는 청중들은 알파한 머리모습을 쉽게 이해하고는 빨리 진도가 넘어갔으면 하는 듯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눈치에도 깨닫지 않고는 단신에 생각하는 만능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싶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끝까지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만큼 정도로 집요하다. 진리가 말을 여지 않았으나 말은 법자가 아

Advertisement for Buddhist scriptures. Title: 불교설법전서 9권 발간. Subtitle: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 초파일 기간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Features: 마음속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Includes a list of book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Jawon' products. Title: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Subtitle: 소중한 분들께 전하는 감사의 선물-희담석 제품이 좋습니다. Features: 희담석, 희담석 필름, 희담석 액자. Includes a list of products and prices.